



한국 온라인 브랜드 http://www.anaworkr/

온라인 쇼핑몰 http://www.samgungco.kr/

온라인 쇼핑몰 http://www.start1234.com/

온라인 쇼핑몰 http://www.adoreynew.com/

온라인 쇼핑몰 http://kangdospots.or.kr/gungdo/index.jsp

온라인 쇼핑몰 http://www.walstaranbang.com/index.html

온라인 쇼핑몰 http://www.kakfumarket.com/



弓

君子之道

Copyright 2005 Yang Jip Bows&Museum all right reserved



활과 화살의 역사

활과 화살이 언제 어디서 발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원시인들과 직립원인(直立猿人)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고고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활과 화살의 발명은 분명히 인류의 역사에 있어 문화적 향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불의 발견이나 언어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의 발명에 의해서 맘모스, 사슴, 소, 물고기에 이르기 까지 동물을 잡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만물의 우위(優位)에 서게 되었다. 더욱이 활은 수렵뿐만 아니고 고대 인류의 전투 무기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 한국 궁시(弓矢)에 대한 유품(遺品)은 함경북도 경흥·성진·회령 등지에서 발견된 뗀철촉[打製鐵鏃]과, 경상북도 경주 등지

에서 출토된 몇 개의 뗀철촉이 있으며, 만주 각지에서 발견된 돌살촉은 모양이나 종류가 한국의 것과 같다. 부족국가에서 무기로 사용한 활은 숙신(肅慎)의 호시석노(楨矢石砮), 동예(東濶)의 단궁(檀弓), 고구려의 맥궁(貊弓:각궁)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르다. 호시(楨矢)란 광대싸리로 만든 화살로서 길이가 1자 8치(54.54cm)이며, 살촉은 백두산에서 산출되는 흑요석(黑曜石)으로 만들었다. 고구려의 맥궁(貊弓)은 각궁(角弓)이었으며, 222년(고구려 산상왕 26) 이전부터 사용하였다. 신라에서는 558년(진흥왕 19)에 나마(奈麻) 신득(身得)이 포궁(砲弓)을 제작하였으며, 백제에서는 이 기술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켰다.

동을 바르게 암이
그 마음을 바르게 암에 있고

弓 道 守 則 九 戒 訓 궁 도 수 칙 구 계 운
아나, 정심정기正心正己 몸을 바르게 암이 그 마음을 바르게 암에 있고
둘, 인애덕행仁愛德行 어짐과 사랑으로 덕스러운 애실을 아고
셋, 영실겸손誠實謙遜 정성스럽고 참되고 실속 있게 남에게 나를 낚주어 순아게 대아고
넷, 자중절조自重節操 자신의 품의를 소중하게 아고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키고
다섯, 염직과감廉直果敢 곧고 청렴하며 용감하고 결단성을 강하게 가지며
여섯, 예의엄수禮儀嚴守 예를 차리는 절차와 몸가짐을 엄하게 지키며
일곱, 습사무언習射無言 활 쓸 때는 말아지 말 것이며
여덟, 불원승자不怨勝者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 것이고
아홉, 막만타궁莫灣他弓 남의 활을 당기지 말 것이다.

죽, 목궁살 경기도 장단과 황해도의 연백지방등지에서 목궁 또는 죽궁에 쏘았던 화살로 화살의 길이가 짧고 가벼운 편이다.

죽, 목궁살 Copyright 2005 Yang Jip Bows& Museum all right reserved

통아 아기살을 넣어 쏘는 발사구로 참나무와 대나무로 제작하고 뒷부분에는 고리를 달아 손가락을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제일 아래의 것은 대나무로 장식하고 붉은 색과 녹색의 단청을 칠하고 금분으로 장식하였다.

통아 Copyright 2005 Yang Jip Bows& Museum all right reserved

편전 조선시대에 비밀병기로 꾸준히 연구되어 여러종류가 제작되었다. 장점으로는 사거리가 멀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적이 주워도 돌려 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발사 속도가 일반 화살과 느리다는 점이다.

편전 Copyright 2005 Yang Jip Bows& Museum all right reserved

거리살 사냥에 사용되었던 화살로 조선시대의 사냥의식이던 강무 시에 사용되었던 의례용 화살이다. 효시 쏘면 소리가 나는 화살, 신호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의례시에 사용되었던 의례용 화살이다.

거리살 Copyright 2005 Yang Jip Bows& Museum all right reserved

仁愛德行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어느시대의 벽화보다도 수렵도가 많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유명한 무용총의 서북벽에 그려진 수렵도이다. 그림 상에는 두명이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모습이 보인다. 오른쪽 사람의 활 쏘는 모습은 배사법(背射法: 뒤로 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람은 호랑이를 겨냥하고 있는데, 활채를 보면 검은색과 흰색, 여러 겹의 줄무늬가 표현되어 있어서 이 활이 조선시대의 각궁과 유사한 합성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역시 만궁이고, 길이로는 역시 단궁이다. 화살은 역시 명적(을고도리)이다.

어심과 사냥으로 덕스러운 행실을 이어

신라의 활은 사정거리가 멀고 명중률이 뛰어났다. 일찍이 당나라에서도 질이 좋은 신라궁(新羅弓)을 높이 평가한 일이 있었다.

화랑이나 경당과 같은 제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류왕(比流王, 304~344)의 경우 320년에 궁 서쪽에 사대(射臺)를 만들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활쏘기 연습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백제에도 무사들의 수련장소로써 활터가 있었고 교육장소로도 사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마 궁술대와 평양시 덕용리 고분벽화(408년)

고려시대는 문반귀족의 등장으로 지배계층이 형성되면서 고려의 무예는 제반문화와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각종 무예와 경기에 유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무예와 볼거리의 즐거움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인 면에서 일단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체육학측면에서도 발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술은 문치귀족사회의 영향을 받아 육예(六藝)의 덕목중 하나로 포함되어 그 사람의 덕(德)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각궁(角弓) 각궁(角弓)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활로, 맥궁(貊弓)이라고도 한다. 뿔의 재료나 길이, 용도 및 활의 크기, 활의 세기 등 세목별 분류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양하다. 현재의 각궁은 연락습사용으로 옛날의 활과 같고, 쏘는 사람의 힘에 따라 강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222년(고구려 산상왕 26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궁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활이다.



육각궁

Copyright 2005 Yang Jip Bows& Museum all right reserved

정량궁(正兩弓) 정량궁(正兩弓)은 '큰활' 또는 육량궁(六兩弓)이라고도 한다. 과거시험을 위해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한 활로, 길이는 약 5자 5치(167cm)이며, 보통의 각궁보다 2배 정도 길다. 예궁(禮弓) 예궁(禮弓)은 대궁(大弓)이라고도 하며, 길이는 6자(182cm) 정도로 정량궁보다 약간 크다. 궁중에서 연사와 반궁대사례 또는 향음주례 등 주로 궁중 예식 때 사용하였다.

목궁(木弓) 목궁(木弓)은 보통 호궁(弧弓)이라고도 하는데, 활고자(활 양쪽 끝의 꺾인 부분)는 뽕나무로, 활채는 광대싸리로 만든 이 호궁이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제작법이 단순하고 제조비용이 싸기는 하지만 각궁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일반 병사용 또는 보조 활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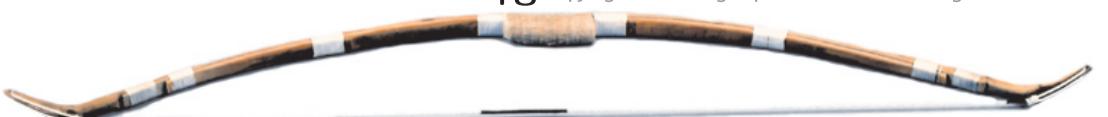
철궁(鐵弓) 철궁(鐵弓)은 철재(鐵材)로 만든 활로서, 몸체는 놋쇠(황동)로 되어 있으며, 전시에만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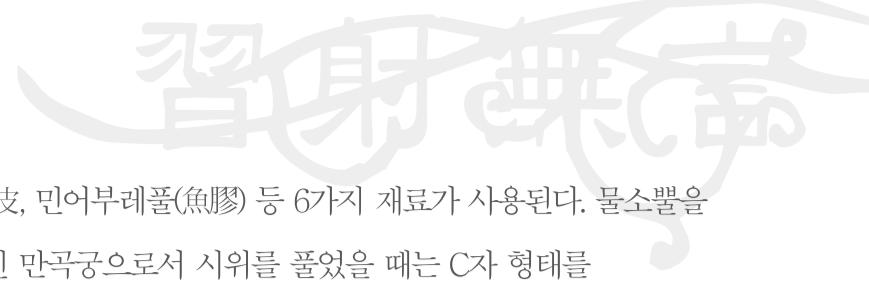
철궁

Copyright 2005 Yang Jip Bows& Museum all right reserved

죽궁(竹弓) 죽궁(竹弓)은 대나무를



단궁(檀弓) 단궁(檀弓)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로, 길이는 107~110cm이다. 주로 수렵에 많이 사용되었다. 죽궁(竹弓) 죽궁(竹弓)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활로 궁중연락(宮中宴樂)과 전시·수렵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말로는 '병테기 활'이라고도 한다.



국궁의 제작 재료는 물소뿔(水牛角), 소힘줄, 대나무, 뽕나무, 檊皮, 민어부래풀(魚膠) 등 6가지 재료가 사용된다. 물소뿔을 주체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각궁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형태는 전형적인 만곡궁으로서 시위를 풀었을 때는 C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시위를 얹게 되면 궁간이 뒤로 당겨지면서 궁체가 줌손을 중심으로 쌍곡선을 그린다. 복합 재료를 이용한 만곡궁이기 때문에 탄력이 좋고 사거리가 긴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공물 품목 속에 角弓이 들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각궁은 명품이었다.

현재 스포츠 용으로는 이 전래의 각궁과 아울러 양궁 소재를 이용하면서 각궁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개량궁도 사용되고 있다. 양궁은 영국 등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서양활을 스포츠 용으로 개량한 것인데, 1960년대 초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때부터 양궁과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궁은 국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禮儀韻律

조선시대에서는 무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내지 제도적 장치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세종 17년에 세종이 병조에 전지한 기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국대전》 병전 시취조의 대표적인 시취과목중 활쏘기에 관련된 것은 목전(木箭), 철전(鐵箭), 기사(騎射)가 있는데, 이러한 조선시대의 무과의 시취과목에 활쏘기가 있는 것은 다른 여러 무예와 함께 공개경쟁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활쏘기는 화살과 거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사(騎射)는 5개의 표적을 각각 35보의 거리로 세워 놓고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맞추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무인뿐만이 아니라 문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익히고 즐겨한 무예였는데, 일반에게 활쏘기는 사정(射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실시된 경기적인 궁술대회를 편사(便射)라 한다. 편사는 5인이상으로 조직된 여러 개의 단체나 각지의 궁수가 자기 사정을 대표하여 서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양편이 각기 일정한 수의 이것은 이 당시 이미 클럽대항 경기를 개최하는 등 무예를 무예로서 뿐만 아니라 우열을 가리는 스포츠의 단계로까지 발전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예를 자리는 절차와 몸가짐을 염아끼기



근대에 접어들어 1909년 7월 15일에 이상필(李相弼), 이용문(李容紋) 등 동호인이 모여 사궁회(射弓會)라는 활쏘기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의 조직으로 민중스포츠로서의 보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스포츠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궁술연구회(朝鮮弓術研究會)가 발족한 때부터이다. 이중화의 『조선의 궁시』는 일제시대에 체육의 소재로 활쏘기를 보급하고 하는 의도에서 편집된 것으로, 조선조의 궁술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소개서로 편집되어 있으나, 훈련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의 궁술 이중화(李重華1881-1950)가 지은

궁술 전문서적으로 1929년 양악정(黃鶴亭)내의

조선궁술연구회(朝鮮弓術研究會)에서 발행된 책이다.

Copyright 2005 Yang Jip Books& Museum all right reserved

대한 궁도협회는 8·15해방을 맞은 이듬해 1946년 2월 10일에 조선궁도회(朝鮮弓道會)의 부활로 정식 발적되었다. 그후 1947년 조선궁도협회로 개칭되었다. 그후 1960년대 접어들어 국제궁도인 <양궁(洋弓)>이 유입되어 한국 궁도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양궁에 있어서도 각종세계대회 및 올림픽에서 세계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왔다. 그러나 1983년 대한궁도협회에서 담당하던 양궁이 따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단체인 대한양궁협회가 생겨났다. 이때부터 대한궁도협회는 국궁만을 담당하면서 국·양궁의 분리와 함께 국궁의 발전은 추출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종 세계대회나 올림픽에서 양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반면 전통적인 우리 국궁은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활과 화살 우선 활은 그 크기에 따라 長弓과 短弓으로 나누어 진다. 長弓은 弓幹이 길어 2m 이상에 이르며 주로 삼림지

대나 해안 지대의 민족들이 사용하였다. 서양의 영국이나 아시아의 일본 및 동남 아시아 여러 섬의 원주민들이 사용한 활이다. 短弓은 반대로 궁간이 짧아 2m 이하가 보통이며, 중국, 몽고, 터키 등 주로 초원지대의 민족이 사용하던 활이다. 쓰여진 재료에 따라 나무로 만들면 목궁, 대나무로 만들면 죽궁, 소뿔로 만들면 각궁, 놋쇠로 만들면 철궁 등으로 분류하고, 제작에 쓰이는 재료가 몇가지 종류인가에 따라 단일궁과 복합궁으로 구분한다. 단일궁은 나무나 대나무의 한가지 재료로 제작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활인 角弓은 단궁이자, 복합궁이며, 만곡궁이다.

복합궁은 나무, 대나무, 뿐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복합궁은 시위를 걸었을 때나 벗겼을 때 궁체가

직선이나 반달모양으로 되지 않고 弯曲됨으로 反曲弓 또는 弯曲弓이라고 부른다. 만곡궁은 활중에서 가장 탄력과 복원력이 뛰어나 사정거리가 직궁이나 반달궁보다 훨씬 길다. 길이는 1m 20~30cm 가량인 단궁으로 2m 20~30cm 전후인 일본의 장궁보다 1m 가량 짧다.